

## 2020 젊은건축가상 심사총평

코로나 19의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젊은건축가상이 진행되었다. 참여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업을 살펴보는 동안 우울한 공기를 잠시 잊을 수 있었다. 2020 젊은건축가상이 풍성했던 이유는 단지 45개 팀이라는 역대 최다 지원자 수 때문만은 아니었다. 디지털미디어 실험에서 장인적인 완성까지, 작은 주택에서 대형 공공건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기 버거울 정도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한국건축의 근사한 풍경을 보여주었다. 한층 높아진 작품의 완성도는 건축가들 저마다의 지향점을 드러내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수상후보를 선택해야만 하는 심사위원들만이 난처했을 뿐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일곱 팀을 축하하기에 앞서 나머지 서른여덟 팀의 작업들에 미련이 크게 남았던 이유이다.

2차 공개심사를 통해 다시 네 팀을 떠나보내는 일은 더욱 큰 아쉬움이었다.

이소우의 김현수와 아플리에준의 유준상은 놀라운 건축적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김현수는 구조와 공간이라는 건축의 기본요소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다양한 물성을 통해 우리의 오감을 일깨우는 보석 같은 작품을 선보였다. 다만 건축가로서의 지향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유준상은 ‘바위집’ 하나로 이미 완성된 건축가임을 증명했다. 석재의 축조와 목재의 결구 디테일만으로도 감동적인 바위집의 완성도가 다음 작업에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알고리즘 기반의 실험적인 작업들을 선보인 이용주는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증명해냈다. 흥미로운 인스톨레이션 작업에 비해 평이한 건축 프로젝트들은 이용주가 극복해야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보여주었다. 활동기간에 비해 놀라운 작업량을 과시한 심플렉스는 간결하고 세련된 어휘로 설득력과 완성도, 보편성을 고루 성취한 보기 드문 성과물을 보여주었다. 심플렉스의 특기인 ‘해결’과 ‘완성’에 더하여 그들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앞으로 만나게 되리라 믿는다.

올해의 젊은건축가상 수상자로 지요건축사사무소의 김세진, 온건축사사무소의 정웅식, 그리고 비유에스의 우승진, 박지현, 조성학 팀이 선정되었다.

지요건축사사무소의 김세진의 작업은 선하고 착하고 진지하다는 인상을 준다. 공공건축이 태생적으로 갖는 수많은 제약과 한계를 김세진 특유의 치열함으로 돌파하면서, 담백하고 절제된 어휘로 일정 수준의 성취를 이루어 내고 있다. 김세진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표면적인 결과물 보다는 작품 뒤에 숨어있는 깊은 탐구와 성찰 때문일 것이다. ‘일정 수준의 성취’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김세진의 화두인 ‘깊이’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깊어지기 위해서라면 담백할 때 더 담백해야하고 절제할 때 더 절제해야하는 것은 아닐까?

온건축사사무소의 정웅식은 울산에서 활동하는 ‘괴력’의 건축가이다. 정웅식은 온 몸으로 건축을 만든다.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에서 건축을 배운 정웅식은 자신의 지향점을 스스로 터득하며 장인의 힘과 정성을 건축의 표면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길을 개척했다. 그의 콘크리트와 동판은 건축가의 땀과 고뇌가 어떻게 건축물을 살아 숨 쉬게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괴력은 마침내 표면을 뚫고 정웅식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의 에너지가 표면 너머에 있는 일상의 삶과 공간의 질서를 폭넓게 아우르기를 기대한다.

비유에스건축사사무소의 우승진, 박지현, 조성학은 신선한 새로움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그들이 천착한 사소한 일상, 그리고 거기서 솟아오른 소박한 공간들은 건축의 진부함에서 비껴있다. 일상의 삶을 이야기로, 삽화로 풀어내어, 마침내 그들만의 '동화적'인 건축으로 창조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동화 같다. 그들이 그리는 유머러스한 드로잉과 완성된 작품의 간극이 크지 않다는 것도 놀랍다. 비유에스는 그들의 건축적 동화가 단지 발랄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건축의 상투성을 극복하는 유쾌한 형식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건축은 이야기보다 오래 가고, 건축을 점유하는 사람도 바뀐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비유에스는 언젠가 이야기를 넘는 건축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 비유에스의 건축이 이야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이야기의 건축으로 진화해가리라 기대하며, 올해의 주목할 시선으로 우승진, 박지현, 조성학을 지목한다.

뉴노멀의 시대 한 가운데에서 2020년 젊은건축가상은 여전히 '특별한' 건축가를 찾는다. 진부함과 상투성을 넘어서는 다양함과 새로움을 찾는다는 뜻은 아니다. 세상은 진부한 다양함과 상투적인 새로움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진정 주목하게 되는 건축가는 다양한 '삶'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낸 건축가들이다.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한 세 팀에게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2020 젊은건축가상 심사위원장 김승희  
심사위원 윤승현  
심사위원 김인성  
심사위원 이정훈  
심사위원 전속희